三國時代 吏讀에 대한 基礎的 論議

김영욱*

要約

三國時代는 紀元前 1世紀부터 統一新羅가 등장하기 이전인 7世紀 중반까지의 약 700여년의 時期를 가리킨다. 資料에 反映된 文字生活의 變化를 根據로 삼고, 4世紀 初葉 樂浪의 滅亡을 基準으로 해서, 필자는 三國時代를 前期와 後期로 細分하였다. 前期는 吏讀 發生 以前의 시기인데 漢字의 韓國的 受容 樣相과 關聯하여 注目할 만한 것으로는 三國志에 記錄된 '濊民作之'가 있다. 여기에 대한 語學的 解釋을 통하여 筆者는 1世紀 頃에 이미 韓國人들이 漢字·漢文을 이용하여 文書를 作成하고 文字生活을 營爲했음을 밝혔다. 이것과 더불어 평양에서 출토된 '初元木簡', 창원의 '茶戶里 遺物' 등은 三國時代 前期의 韓半島 文字生活을 추론할 수 있는 重要한 資料임을 確認하였다.

三國時代 後期부터 初期 吏讀가 登場하기 始作하는데, 필자의 관점에서는 그 시초가 高句麗이고, 5世紀 以後 高句麗의 吏讀가 韓半島 全域으로 퍼진 것으로 보았다. 7世紀 무렵 新羅에 이르러서는 漢文과는 완전히 결별된 吏讀文이 登場한다. 吏讀發達史에서 중요한 轉機는 7世紀의 新羅吏讀다. 助詞와 語末語尾의 表記는 물론, 漢文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先語末語尾 表記가 新羅의 木簡資料에서 確認된다.

*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핵심어 : 吏讀, 三國志, 濊民作之, 初元木簡, 先語末語尾의 表記

1. 問題의 提起

1.1. 排他性에 대한 反省

吏讀에 대한 近代的 硏究의 歷史가 결코 짧은 것이 아니지만 硏究의 觀點이나 方法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큰 변화가 없었다. 吏讀의 近代的 硏究는 朝鮮總督府에서 편찬한 吏讀集成의 부록 제 1면에 실린 石刻文에서 그 출발점을 確認할 수가 있다. 丙戌十二月中 漢城下後部小兄文達節 自此西北行涉之. 集成의 凡例에 "本書吏讀の蒐集及び編輯は,主として本院囑託金聖睦氏が之を擔當した"라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1913년 金聖睦에 의해 硏究가 비롯되었음을 證言한다[1]. 그는 평양 석각문에 보이는 之, 節 등이 漢字와 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吏讀라고 解釋해 냈다[2]. 즉, 中國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용법이 韓國에 존재하고, 이것이 借字의 형식을 빌려서 사용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차자는 吏讀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注目할 만한 점이 있다. 吏讀를 發見하고 確認하는 過程에서 絶對的으로 適用되는 '排他性'이라는 관점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용법과 한국의 용법이 겹치지 않는 경우, 한국 차자의 용법이 중국과 排他的일 때에만 그 借字가 吏讀로 認定이 된다는 관점이다.

평양의 석각문에 보이는 之, 節 등을 이두라고 한 것은 '排他性'이라는 近代的 槪念에 根據한 것이다. 그러나 筆者는 吏讀의 起源 問題와 關聯하여, '排他的 觀點'이 아니라, '進化的 觀點'에서 論議를 진행하고

1) 여기에 대해서 李基文(1981: 65-66)을 參照할 수 있다.
2) 이때의 中은 당시에 '西'로 誤讀되었다.

자 한다. 吏讀를 進化的 혹은 發達的 觀點에서 解明하고자 하는 까닭은 새롭게 발견된 木簡資料나 金石文 資料,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韓·中·日 古代 文字資料의 比較硏究 結果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近代的 槪念의 吏讀는 오늘날까지도 學界에서 여전히 有效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것들이 과연 진정한 이두인가'라는 충격적 의문이 제기되었다[김병준(2009) 참조]. 최근에 이르러서야 한국의 木簡과 중국의 簡牘에 대한 비교 검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그동안 한국에서만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믿어왔던 初期 吏讀가 중국에서도 쓰이고 있었음이 김병준(2009)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3] 한마디로 석각문에 보이는 '-中, -之, -節' 등은 고구려에서 독창적으로 고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4] 예를 들어 秦나라에서도 之가 쓰였다. 今且令人案行之(雲夢睡虎地 秦簡). 以其價多者罪之(雲夢睡虎地 秦簡).

만일 排他性에만 基準을 둔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高句麗의 吏讀는 더 이상 이두가 아니다[5]. 다시 말해서 근대적 개념에 입각하여 이두를 정의를 한다면 김병준(2009)의 주장은 치명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초기 이두는 이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성목(1913) 이래 최근까지 연구되어진 초기 이두에 관한 결과물들은 과연 무의미한 것에 불과한가?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타성'에 입각한 이두의 정의만이 이두 연구에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근대적인 개념에 앞선, 吏讀에 대한 우리 先祖들

3) 여기에 대해서는 金秉駿(2009), 權仁瀚(2010)을 參照.

4) 여기에 대해서는 金秉駿(2009)를 參照.

5) 고구려 이두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았던 자료는 광개토왕비문이다. 정광(2003: 65-6)은 비문에 보이는 '於'를 목적격조사 '-을'에 대응시켰다. 王於忽本. 이것은 이준석(1998: 99)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於'를 訓借하여 목적격으로 쓰인다는 언급은 양주동(1965/1997: 300)에서도 보인다.

의 '傳統的 槪念'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최만리의 反對上疏에 보이는 이두의 개념을 검토해 봄으로써, 김성목(1913) 이래로 고착되어버린 근대적인 개념에 따른 이두와, 우리의 조상들이 생각했던 전통적인 개념의 이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세종실록에는 이두와 관련된 왕과 신하의 토론이 실려 있다. 세종이 최만리에게 한글과 이두는 백성을 편하게 해주는 점에서 같은 것인데, 이두에는 찬성을 하고 한글을 반대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최만리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이두가 한글처럼 한자와는 다른, 우리의 문자이지만 모두 중국에서 통행하는 문자를 빌려서 썼다는 점에서는 한글과 구별된다는 주장이었다[6]. 여기에서 우리는 최만리의 이두에 대한 발언, 즉 '然皆借中國通行之字'란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성목(1913) 이래, 이전에 이두 연구자들은 이두를 배타성에 근거하여 중국과 다른 것, 즉 중국에서는 쓰지 않지만 한국에 있는 것만이 吏讀라는 경향이 있었지만, 중국에서 사용되던 것을 빌려왔다는 점에 注目을 하게 되면, 우리는 초기의 이두가 어떠한 모습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이두에 대한 전통적 인식은 근대적 인식과 차이를 보인다. 전통적인 인식은 배타적인 관점보다는 進化的 혹은 發達的 觀點에 가깝다.

이러한 관점이 삼국시대의 이두를 설명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진화적 관점에 서면 앞에서 언급한 김병준(2009)의 예문들은 고구려에 이두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吏讀의 發生이 어떠한 過程을 거쳤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해당한다.

---

6) 新羅薛聰吏讀 雖爲鄙俚 然皆借中國通行之字 施於語助 與文字元不相離 故雖至胥吏僕隷之徒 必欲習之 先讀數書 粗知文字 然後乃用吏讀 用吏讀者 須憑文字 乃能達義.

1.2. 古代國語라는 범주에 대한 反省

三國時代 吏讀의 硏究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당시의 다양한 言語 狀況을 어떻게 範疇化할 것인지에 있다. 알다시피 三國時代 初期에는 수많은 部族國家들이 韓半島에서 共存하였다. 言語의 種類도 오늘날보다 훨씬 多樣했다. 가령, 王에 관한 單語도 지금과는 달리, 居西干, 次次雄, 尼師今, 麻立干, 於羅瑕, 鞬吉支 등으로 豊盛했다.

部族 間의 言語 疏通이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현재에 남아 있는 것으로는 斷片的인 文獻記錄밖에 없어서 그 실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처럼 다양한 고대 한반도 지역어들을 한가지로 뭉쳐서, '古代國語'라고 範疇化하는 것이 言語學的으로 어떠한 意味가 있는지에 대해서 反省할 필요가 있겠다. 基準을 分明히 提示하지도 않은 채, 혹은 構成員들의 共同屬性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充分한 考察 없이 여러 가지 言語들을, 敍述의 便宜上, 하나로 묶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疑懼心이 남는다.

더욱이 三國時代는 다른 시기에 비해 絶對年度가 길다. 新羅의 建國이 시작되는 紀元前 1世紀부터 치더라도 統一新羅가 成立되는 7世紀에 이르는 시기를 모두 합치면 700여 년이다. 이것을 하나의 시대로 묶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言語學的인 面이나 文字 資料의 表記에 있어서 異質的 要素들이 混在한다.

이에 따라 本攷에서는 樂浪이 滅亡한 4世紀를 基準으로 三國時代를 前期와 後期로 兩分하고자 한다. 前期는 樂浪에 移植된 漢의 文字文化 혹은 文書行政이 지배적인 시기였고, 後記는 5世紀부터 7世紀까지인데 高句麗를 시작으로 百濟, 新羅의 吏讀가 차례로 發達한 時期였기 때문이다.

古代國語에 대한 學界의 通說은 三國時代에서 統一新羅까지로 잡으며, 高麗時代부터는 中世國語의 始作으로 보지만, 古代國語를 13世紀까지 延長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學者들도 있다[7]. 이에 따르면 古代國

語 時期는 1400여년으로 中世國語와 近代國語를 합한 時期보다도 길다. 一般 歷史學에서 中世라고 하는 時期를 高麗時代쯤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國語史의 時代 區分에서 아무리 口訣資料의 特殊性을 强調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主張은 時期 區分에 있어서 例外的인 것일 수밖에 없다. 口訣 資料라는 特殊한 事項도 重要하지만, 新羅의 統一戰爭으로 인한 群小 部族語의 消滅이라든지, 慶州 方言 中心의 새로운 中央語의 登場, 首都의 이전으로 인한 中央語의 交替 등도 國語史的으로 比重이 있는 事件이 아닌가 한다.

本考에서는 暫定的으로 '古代國語'라는 通稱的 表現 대신 '三國時代 前期, 三國時代 後期, 統一新羅時代, 高麗時代' 등의 表現을 쓰고자 한다. 그리고 三國時代 吏讀의 硏究 資料로는 金石文, 木簡, 塼文, 瓦文, 陶文 등 一次資料를 바탕으로 하되, 文獻資料는 補助 資料로 삼는다[8].

2. 三國時代 前期

2.1. 漢字의 受容

7) 國語史의 時期 區分에 있어서 一般歷史學의 상황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三國時代가 끝나고 統一新羅가 이어지는 7세기 후반, 8세기 무렵에 이미 西歐에서는 서로마제국이 붕괴되고 고대시대에서 중세적 질서로 재편되고 있었다. 이때부터 사라센 帝國이 中東 地域에서 일어났던 시기다. 당나라도 이 무렵에 쇠퇴기로 접어들었다. 이보다 한참 뒤인 13세기는 이미 世界史의 흐름에서 中世時代도 어느 정도 마무리해 가면서 近代를 준비하는 力動的인 시기였다.

8) 國語史 硏究方法의 기본은 文獻的 硏究다. 比較나 內的再構, 方言 등은 文獻資料의 缺乏을 補充하는 手段이다. 그러나 三國時代에는 이렇다 할 文獻 資料가 없다. 三國志, 三國史記, 三國遺事가 있지만 三國志를 제외한 나머지는 後代의 記錄이라서 再構의 문제가 따른다.

吏讀의 發生은 漢字가 韓半島에서 使用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물론 韓半島에서 漢字를 전혀 使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韓國人의 必要에 의해서 中國의 文字를 가져다가 韓國에 移植했을 可能性도 전혀 排除할 수는 없다. 가령, 인도네시아 찌아찌아 족의 예처럼, 한글이 그 사회에서 전혀 通行되지 않았지만 社會的 必要에 의해서 不連續的으로 移植될 수가 있겠다. 그러나 최만리 上疏文에 보이는 '然皆借中國通行之字 施於語助'를 吟味해 보더라도 吏讀는 移植과 거리가 멀다.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서 중국에서 통용하는 문자들을 빌려왔다는 것'인데 '語助'라는 것은 漢字로 疏通이 不可한 것은 아니지만, 보다 圓滑하게 疏通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으로 解釋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韓民族이 漢字로 疏通을 하는 바탕 위에 吏讀라는 借字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원만한 文字生活을 영위했다는 뜻이다. 이것은 吏讀가 漢字와는 떼려야 뗄 수 없다는 關係를 言及한 것이다.

吏讀는 漢字 使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漢字가 언제부터 韓半島에 傳來되었고, 韓民族이 漢字를 主體的으로 使用하게 된 時期가 언제였는지를 確認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吏讀의 起源을 追跡해 낼 수 있다.

중국의 고전에 '武王勝殷繼公子祿父釋箕子囚 箕子不忍周之釋 走之朝鮮 武王聞之 因以朝鮮封之(尙書大傳)'라는 기록이 있다. 이에 따르면 기원전 12세기(무왕 16년, 기원전 1119년)에 기자에 의해서 조선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漢書의 '箕子去之朝鮮 敎其民以禮義 田蠶織作樂浪朝鮮民犯禁八條'에 의하면 樂浪朝鮮에서 明文化 한 法律을 施行했다고 한다. 이것은 낙랑 조선이 成文法에 근거한 文明社會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자의 실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낙랑 조선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 게다가 法律이 漢字로 記錄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용의 주체가 土着民이었는지 아니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歸化人들로 局限되어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겠다[9].

문헌 기록보다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考古學的인 遺物들이다. 기원전 3-4세기에 통용되었던 燕나라의 明刀錢, 그리고 기원전 3세기 무렵의 秦戈가 한반도의 북부지역에서 出土되었다.[10] 明刀錢이나 秦戈에는 漢字가 새겨져 있어서 이것으로 판단컨대 韓半島에 漢字가 傳來된 시기는 아무리 늦잡아도 기원전 3세기다. 기원전 3세기 무렵에 한반도에서 한자가 통용은 되었지만 명도전이나 진과의 제작자가 土着民이었을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이다. 설령 중국인들의 주문 제작을 맡은 장인 중에 토착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문자의 주체적인 사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11].

土着民들이 漢字를 主體的으로 使用했을 것이라는 心證을 더하는 구체적인 유물은 기원전 1세기 무렵쯤에야 나타난다. 창원시 茶戶里의 목관묘에서 毛筆과 削刀가 출토되었다[12]. 물론, 여기에서 붓이라는 副葬品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실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祭祀用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당시에는 붓을 貴重品으로 생각하여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묻어두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필자는 붓의 길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붓은 길이가 약 23㎝이다. 漢의 도량형에 따르면 이것은 1척에 해당하는 길이다.[13] 이에 따

9) 한자로 된 법률은 귀화인들만 알 수 있었고 토착민들이 모르더라도 귀화인들이 지배계층이었다면 명문화된 법률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률의 존재가 그 자체가 토착민들의 한자 사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대 문헌에 보이는 기록만으로 韓民族의 漢字受容史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0) 리득춘(1992: 11-12)를 참조.

11) 하나의 상표이거나 아이콘 정도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2) 1988년에 발굴되었는데 붓대에는 漆이 발려져 있었고 兩端에는 毛筆이 附着되어 있었다.

13) 국립중앙박물관 편(2001: 248)을 참조.

라 당시에 실제로 쓰였던 붓의 길이가 얼마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後漢의 王充이 기록한 것이다. 知能之人須三寸之舌一尺之筆(論衡). '일척지필'은 당시의 식자들이 사용했던 붓을 말한다. 이것은 다호리에서 출토된 붓의 길이와 일치한다. 길이의 일치가 우연이 아니라면, 다호리의 붓은 실용적인 붓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削刀가 있었다는 것은 茶戶里 毛筆의 사용 시기가 後漢 蔡倫紙 이전이었음을 감안하면 당시의 書寫 材料는 木簡으로 짐작된다.

이에 따라 기원전 1세기 무렵 한반도에서는 木簡에 漢字를 붓으로 서사하는 문자생활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이것으로 우리 祖上이 漢字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은 아니다. 木簡에 서사된 한문 텍스트가 발견되지 않았고, 붓과 함께 削刀가 있었지만 삭설(削屑, 삭도로 깎아낸 종이 부스러기)이 確認되지 않았다[14]. 더욱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붓의 사용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밝혀주는 유물이나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비록 한반도의 남부인 창원에서 붓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사용 주체가 韓國人인지, 中國人인지 혹은 日本人인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逢着한다.

三國志에 기록된 '濊民作之'에 관한 대목은 漢字 使用의 主體가 韓國人이라는 점을 決定的으로 뒷받침하는 資料다. 三國志는 그 동안 국사학계나 국어학계에서 수없이 인용된 文獻이다. 그러나 筆者의 寡聞인지는 몰라도, '韓國人의 漢字·漢文 受容'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이 구절에 주목한 학자는 아무도 없었던 듯하다.

'濊民作之'는 韓國人들이 언제부터 漢文을 主體的으로 使用하기 시작했고, 언제부터 漢字를 이용하여 文書를 作成할 수 있었으며, 韓國人들끼리 漢字·漢文를 이용하여 文字生活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었던 時期가 언제부터인지를 推論할 수 있게 해 주는 重要한 記錄이라고 생각한다.

---

14) 나무에 새겨진 글을 지우고 그 나무를 다시 쓰고자 할 때에 칼로 붓글씨를 깎아내었다. 木簡이 당시의 공책이라면 削刀는 일종의 지우개였다.

沃沮還屬樂浪 漢以土地廣遠 在單單大領之東 分置東部都尉 治不耐城 別主領東七縣 時沃沮亦皆爲縣 漢建武六年 省邊郡 都尉由此罷 其後皆以其縣中渠帥爲縣侯 不耐華麗沃沮諸縣皆爲侯國 夷狄更相攻伐 唯不耐濊侯至今猶置功曹主簿諸曹 皆濊民作之(三國志 魏志東夷傳, 東沃沮條).

漢이 東部都尉를 두어 沃沮를 관할했지만 土着民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都尉를 없애고 沃沮의 渠帥(읍락의 우두머리)를 縣侯로 삼았다는 것이다. 主簿는 官名, 文書, 帳簿 등을 관리하는 직책이다[15]. 이것을 濊民이 맡았다는 것은, 東沃沮의 濊民이 文書를 作成하고 帳簿를 관리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가 光武帝 卽位 6年으로 서기 30년이므로 우리 조상들이 최소한 1세기부터는 스스로 漢字를 사용하여 文書를 작성하고 帳簿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2. 吏讀의 發生

1세기 무렵부터 漢字를 主體的으로 使用하기 시작한 韓民族은 이 시기에 中國에서 通用하던 文字들을 借用하여 文字生活을 營爲하였다. 그러나 三國時代 前期인 紀元前 1世紀부터 紀元後 4世紀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文字 遺物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吏讀의 痕迹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기원전 1세기의 문자 유물로는 평양시 낙랑구역의 木槨墓에서 출토된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多少'로 시작하는 목간이 있다. 초원 4년은 BC 45년으로 한의 식민지배가 시작된 지 63년이 경과한 시기인데 紀元前 韓半島의 戶口 狀況이 詳細히 記錄되어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資料다. 이것은 당시의 낙랑군이 漢의 文書行政에 따라 統治되고 있었음을 증언한다. 여기에는 당시의 韓半島 地域에 多樣한 地名들이 記載되어 있어서, 앞으로의 硏究 結果가 注目되지만 현재까지는

15) 자세한 사항은 국사편찬위원회(1987: 265)를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 吏讀의 痕迹이 發見되지는 않았다.

그 다음으로는 韓半島 最古의 碑文인 元和10年(기원 84년)의 秥蟬縣 神祠碑를 들 수 있다[16]. 아직 완전하게 判讀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神에게 祭祀를 지내고 祈願文을 刻石한 것이다. 風雨가 順調로와 土地를 潤澤하게 하고, 五穀을 풍성하게 하되, 盜賊이 일지 않도록 기원한 것으로, 드나드는 吉利에게 神의 恩寵을 내려달라는 내용이지만 여기에서도 吏讀의 痕迹은 보이지 않는다[17].

吏讀의 起源的 모습을 探索할 수 있는 資料는 황해도 봉산군 문정면 태봉리 1호분에서 1914년에 출토된 塼文으로 유물 연대는 348년으로 추정된다[18]. 父母旣好且堅典齎記之. 天生小人供養君子千人造塼以葬[19]. 판독문에 대한 해독이 國立中央博物館 編(2001)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의 판독문에 대한 필자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부모인 기호차와 견전재가 기록한다(父母 旣好且 堅典齎 記之) 천생소인이 공양하는 군자 천인이 지은 벽돌로 장례를 치른다(天生 小人 供養 君子 千人 造塼以 葬). 이것을 漢文으로 읽어도 解釋에 지장은 없다. 또한 이것을 韓國語 文章의 語順으로 읽어도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注目할 만한 구

16) '○○○年四月戊午秥蟬長○○/○建丞屬國會○○○○○/ ○神祠刻石辭曰/○平山君德配代崇承天○○/○佑秥蟬興甘風雨惠閒土田/○○壽考五穀豊成盜賊不起/○○蠶臧出入吉利咸受神光'.

17) 판독문은 국립중앙박물관 편(2001: 66)을 참조할 수 있다. 거기에 해석은 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고대 낙랑 시대의 관리로 짐작되는 '길리'라는 단어가 흥미롭다. 후대의 捷解新語에서 나타나는 '日吉利'에서 그 용례의 흔적을 비교해 봄직하다.

18) 國立中央博物館 編(2001: 178)을 참조.

19) 판독문은 "父母旣好且堅典齎記之 天生小人供養君子天人造塼以葬國立中央博物館 編(2001: 181)]인데 이에 따르면 둘째 행의 아홉째 글자는 '天'이다. 이것은 再考를 要한다. 天生의 天과 대조해 보면 아래 획이 大자로 양옆으로 갈라져 있지만 '군자천인'에 보이는 '천'은 十자 모양으로 아래 획이 수직으로만 내려 그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문제의 '천'을 '千'으로 판독한다.

절은 '記之'의 '之'이다. 이것은 韓國語의 平敍形 終結語尾 '-다'의 機能에 對應한다.

물론, 이런 식의 之라고 해서 모두 韓國的인 것은 아니다. 漢文에서도 가능한 구절이다. 가령, 詩經의 樛木에 보이는 '樂只君子(즐거운 군자여) 福履綏之(복됨으로 편안하다)'의 예를 파악컨대, 이때의 '之'는 虛辭로 쓰여서 終結語尾의 役割과 흡사하다. 그러나 詩經에 나오는 '之'의 用法은 詩歌에 쓰임으로써 韻律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塼銘의 散文과는 그 쓰임이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바 최만리의 上疏文에서도 알 수 있듯이, 吏讀란 借中國通行之字로 施於語助인 것이다. 즉, 中國에서 通行하던 것을 빌려서 語助, 즉 소통을 위한 방편이다. 父母 旣好且 堅典齋 記之에서 之를 빼더라도 通行에는 지장이 없다. 之가 부가된 것은 語助를 위함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吏讀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樂浪塼銘에 보이는 語助의 '之'가 5世紀 高句麗의 文字資料에 繼承되었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德興里古墳墨書의 '旦食鹽豉食一椋記之'와 '曹職吏故銘記之'에서 樂浪의 之가 高句麗로 繼承되었음을 본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高句麗 吏讀의 出發點으로 確信하기는 이르다. 덕흥리 고분의 주인이 歸化人이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위의 문장을 吏讀라기보다는 中國式이었다고 留保하는 편이 愼重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서 重要한 事實은 이러한 歸化人의 文法이 高句麗人에게 傳播되었다는 점이다. 廣開土王碑文의 '制令守墓之'가 보이며, 平壤石刻文에서도 '西北行涉之'의 '-之'가 確認된다. 中原高句麗碑에서는 한 텍스트에서 그 용례가 무려 3번이나 나타난다. 東來之. 建立處用者賜之. 敎跪營之. 이것이 비단 고구려에만 그친 것은 아니다. 신라의 咸安 城山山城出土一面墨書木簡 281番은 6세기 중반 자료로, 여기에 보이는 '殂鐵十之'를 해석하면, '조철이 열 개다'이다[20]. 비슷한 시기의 丹陽赤城碑에 보이는 '合五人之'도 널리 알려진 예다.

만일 排他性에 근거하여 吏讀를 定義한다면, 위의 예들은 모두 吏讀가 아니다. 최만리의 논의가 吏讀에 대한 傳統的인 認識의 所産이라는 점에 동의를 한다면, 이두는 借中國通行之字로 施於語助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위의 之들은 語助의 之이면서 中國에서 通行하던 文字다. 그리고 이것들은 韓國語의 表記를 위해서 使用되었고 後代에도 繼承되었다.

3. 三國時代 後期

3.1. 高句麗의 吏讀

高句麗의 吏讀를 논할 때에 廣開土王碑文을 들지 않을 수 없다. 買人制令守墓之. 이것은 "買人은 制令에 따라 守墓한다."이다. 李基文(1981: 70)에서, 이때의 '之'를 漢文으로 풀이하면 語塞하기 때문에 文終結 機能의 吏讀로 해석한다고 하였다.

之뿐만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평양성 석각문의 '丙戌十二月中 漢城下後部小兄文達節 自此西北行涉之.'에 보이는 中, 節 등도 고구려 이두다. 慶州 瑞鳳冢에서 出土된 銘文銀盒의 '三月中太王敬造'의 中도 마찬가지다. 李基文(1981)에서 中原高句麗碑文에 나오는 '五月中'의 '中'도 吏讀라 했다[21]. 五月中 高麗太王祖王令 新羅寐錦 世世爲願 如兄如弟 上下相和 守天 東來之[22]. 이러한 中의 용법은 高句麗에서

20) 여기에 대해서는 김영욱(2007나: 149)를 參照.

21) 거기에서 李基文 先生은 碑文의 '五月中'이, 銀盒盂銘의 '三月中'과 高句麗城石刻文의 '十二月中'에 이은 세 번째 발견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處格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中'의 用法은 北魏, 高句麗, 新羅, 日本에 걸쳐서 發見된다 하였다.

22) 해석하자면, "오월에 고려태왕(문자왕)의 조왕(장수왕)이 명하였다. 신라 매금(왕)이 世世로 願하되 兄弟처럼 위아래가 서로 和하자고 하므로 守天하

百濟, 新羅로 傳播되었다[23].

金石文에 보이는 之, 中, 節 외에 문헌 자료에 보이는 예들은 吏讀의 目錄을 더욱 豊盛하게 만든다. 高句麗語 硏究의 傳統的인 方法은 文獻資料에 의한 것이다. 三國史記 권 37의 '買忽一云水城'처럼, 音讀과 釋讀이 대응하는 資料들이 있다. 이때의 水城은 釋讀字인데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漢字를 借用한 吏讀라고 할 수 있겠다.

吏讀는 文脈에 따라 여러 가지 意味로 읽힌다. 漢字에 대응하는 문맥에서는 국어를 표기하는 借用 文字의 뜻이다. 漢文에 대응하는 문맥에서는 吏讀로 표기된 文章의 意味로 쓰인다.

이것은 鄕札이 문자이기도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문장으로 쓰이는 것과 같다. 균여전의 최행귀 서문에 보면, '鄕札似梵書連布 彼土難諳 使梁宋珠璣 數托東流之水 秦韓錦繡 希隨西傳之星'이 있다. 여기에서 향찰은 금수에 대응하는데 이때의 금수는 문장을 비유한 것이다. 향찰이 문자가 아닌 문장의 의미로 쓰일 때에 굳이 향찰문이라고 하지 않아도 통용되듯이, 이두도 굳이 이두문이라 하지 않아도 문장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향찰의 1차적인 의미가 우리나라의 문자이듯이, 吏讀의 1차적 의미도 文字다. 그렇다면 '水城'이 비록 문장은 아니더라도 漢字를 빌려서 우리말, 즉 高句麗語를 表記했다는 점에서 吏讀의 範疇에 屬한다. 물론 차자표기법을 상위의 범주로 두고, 그 아래에 고유명사 표기, 그리고 이것과는 다른 이두를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서는 之, 中, 節과 같은 문법형태뿐만 아니라 水城과 같은 어휘형태도 이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편이 효율적이다. 이것은 '然皆借中國通行之字'라는 전통적인 인식과도 부합한다[24].

기(약속을 지키기) 위해 東으로 왔다."로 할 수 있다.

23) 부여의 雙北里 '佐官貸食記' 木簡의'戊寅年 六月中'과 伏岩里 木簡의 '三月中'에 보이는 '中'도 고구려의 이두 中과 그 기능이 동일하다.

24) 이런 관점에서 鄕札도 吏讀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학계의 통설

吏讀와 口訣, 鄕札은 별개의 文字시스템이라는 것이 기존의 통념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近代的 偏見'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端緖가 잡혔다[25]. 月城垓子의 목간에서 釋讀口訣에 쓰이는 것과 동일한 字形인 'ㅣ[대]'가 사용된 것이다. 이것은 吏讀와 口訣이 混用된 最古의 事例다.

釋迦塔墨書紙片의 吏讀에서도 口訣의 '今[며], 彡[야]'가 吏讀와 함께 쓰였다[26]. 傳仁容寺址 木簡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27]. 필자의 관점에서는 口訣도 吏讀로 包攝할 수 있다. 최만리 반대상소에 보이는 이두의 설명은 口訣에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新羅薛聰吏讀 雖爲鄙俚 然皆借中國通行之字 施於語助. 語助에 的確한 것은 口訣이다. 설총 이전에도 이두가 있었으니, 최만리의 기록에 근거한다면 설총이 발명한 것이 구결이었을 것이다. 다만 당시 학자들의 인식에서 구결과 이두를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28].

은 구결, 향찰, 이두를 구분한다. 이해를 위한 것이 구결이요 표현을 위한 것이 향찰과 이두인데 문학적인 글에는 향찰이, 비문학적인 글에는 이두가 쓰인다는 것이다. 이런 전통적인 분류 방식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새로운 자료들이 속속 발견됨에 따라 이러한 구분법이 때로는 모호해질 때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25) 여기에 대해서는 김영욱(2007)과 정재영(2008)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6) 여기에 대해서는 이승재(2009가: 123)을 참조.

27) 거기에는 鄕歌에 보이는 '-古如'가 吏讀資料에 함께 쓰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영욱(2011)을 참조할 수 있다.

28) 이에 따르면 吏讀의 範疇는 매우 넓다. 이것은 三國時代부터 15世紀까지 한반도에서 통용되었던 문자는 '漢字, 吏讀, 한글' 등 세 부류로 정리할 수 있다. 筆者는 이런 뜻으로 吏讀의 範疇를 넓게 설정한다. 물론 기존의 용어들이 모두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문맥에 따라 좀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좁은 의미에서 吏讀, 口訣, 鄕札이란 용어를 쓸 수가 있으며 또한 고유명사 표기법을 별도로 분리하여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한에서 이두의 범위에 고유명사가 표기법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이두에는 금석문에 보이는 자료뿐만 아니라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보이는 고유명사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삼국사기에 기록된 것은

또한 釋讀表記의 傳統이 高句麗 資料에서도 確認된다. 5世紀 高句麗 遺跡址 중에는 牟頭婁 무덤이 있다. 무덤의 천장에 800字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문자 자료가 있다. 1935년, 集安縣 中學校의 王永璘 교사가 무덤 안 글씨의 존재를 제보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무덤 기록의 형식과 내용이 廣開土王碑文과 흡사하고 묘지의 조성 연대도 5세기 중반이다.[29] 여기에는 놀랍게도, "國罡上大開土地好太聖王(44-45行)"이란 구절이 나온다[30]. 광개토왕 비문의 '國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과 동일한 인명이 모두루 묘지에 기록된 것이다. 이것은 5세기 고구려의 고유명사에 대한 '異表記'의 예를 1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뜻한다. '國罡上大開土地好太聖王'을 광개토왕비문의 '國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과 대조하면 '廣開土'가 '大開土'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여태껏 '廣開土王'으로 알고 있던 역사적 인물이 다른 이름으로도 표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廣'과 '大'가 같은 소리값을 지녔다는 사실과, 최소한 둘 중의 하나는 석독했음을 의미한다[31]. 문제는 '廣'과 '大'의 소리값을 재구하는 것이다. '廣, 大'는 동일인명 표기이므로 음가도 같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淵蓋蘇文 : 伊梨柯須彌'에서 이때의 '淵'이 '*iri'로 석독되는 것과 마찬가지다[32]. 당시의 고구려인들은 '*han/한'을 표기하기 위해,

---

알다시피 경덕왕 16년인 757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것은 삼국시대 이후의 변개이므로 고구려의 지명표기 혹은 관등, 관직 표기 등이 삼국시대의 이두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인지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29) 여기에 대해서는 韓國歷史硏究會 編(2004: 36-42)를 參照.

30) 尹善泰 敎授(東國大)가 이 사실을 筆者에게 일깨워 주었다. 尹敎授에게 깊은 感謝의 마음을 傳한다.

31) '國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나 '國罡上大開土地好太聖王'이 音讀만으로 이루어졌었더라면 이런 異表記 現象은 나타날 수 없다.

32) 그러니 우리가 歷史敎科書를 通해서 알고 있는 淵蓋蘇文은 [연개소문]으로 發音하기보다는 [이리개소문]이라 하는 것이 實際에 더 가까운 것이다.

'廣'이나 '大'를 썼을 것이다[33]. '廣'이나 '大'字를 借字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異表記 현상이 나타나기 어렵다[34].

3.2. 百濟의 吏讀

4세기 후반 무렵, 근초고왕 때의 기록으로 '古記云 百濟開國以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 得博士高興 始有書記 然高興未嘗顯於他書 不知何許人也(삼국사기 권20)'라는 것이 있다. 4세기 후반에 이미 '書記'라는 기록이 있었으니, 百濟가 적어도 新羅보다는 文字文化가 앞섰던 것이 아닌가 한다. 百濟의 吏讀 硏究도 傳統的으로는 文獻 資料에 根據하였다. 三國史記의 地理誌에 보이는 地名이 重要資料인데 이를테면 '石山縣本百濟珍惡山縣'에서 '石 : 珍惡'이 '釋讀 : 音讀'으로 대응한다. 이때의 石은 '*torak'으로 再構할 수 있다. '珍惡'도 漢字를 차용해서 百濟語를 표기한 것이므로 필자의 관점에서는 이것도 吏讀의 範疇에 포함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현전하는 문헌은 後記 資料이므로, 그것이 三國時代의 吏讀였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三國時代의 吏讀였

33) 百濟의 古地名인 '廣津'은 '漢江의 나루'다. '廣'은 漢江의 '漢'에 對應한다. 이에 따르면, '廣'을 '*han'으로 再構할 수 있다.[都守熙(2005: 37)를 參照. 廣開土의 '廣'도 '*han'으로 再構된다. '大'는 '大舍: 韓舍'의 對應例를 考慮할 때에 그 音價 또한, '*han'으로 推定된다. 다시 말해서, '廣'과 '大'의 音價는 모두 '*han'이다.

34) '*han/한'이 '廣'과 '大'로써 그 異表記를 보인 것이 國語史 硏究를 위해서는 天幸이 아닐 수 없다. 비문과 무덤 글에서 각각 '廣'과 '大'로 表記될 確率이 높지 않다. 萬一, 둘 다 廣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大로만 表記되었더라면, 우리는 비문과 무덤글에서 釋讀의 證據를 捕捉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廣 : 大'는 '大 : 韓'과 마찬가지로 同音이었다는 事實은 韓國 固有의 釋讀表記 起源이 5世紀 高句麗였음을 意味한다. 우리가 歷史敎科書를 통해서 알고 있는 '廣開土王'도 [광개토왕]보다는 [한개토왕]이라 부르는 것이 實際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음을 確實하게 保障하는 百濟의 1차 자료는 많지 않다. 1971년 7월 공주에서 출토된 武寧王陵 誌石文에서 百濟 吏讀의 痕迹을 찾을 수 있다.

全文은 7행 53자로 이루어져 있으며[35] 字徑은 평균 2.5㎝ 정도이다. 잘 다듬어진 平板 磨石의 銘文에는 南朝風의 流麗優雅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다[36]. 寧東 大將軍 百濟 斯麻王 年 六十二 歲[37] 癸卯年 五月 丙戌朔 七日 壬辰 崩 到乙巳年八月癸酉朔十二日甲申安厝登冠大墓立志如左 印[38]. 마지막의 印은 문장의 끝마침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一種의 文章符號와 같은 기능을 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표현 방법도 百濟式이라는 점에서 이것을 吏讀의 範疇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여기에서 '年六十二歲'도 百濟吏讀라 할 수 있다. 대개 중국식이라면 이러한 경우에 '春秋 六十一'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예들은 4세기 경 東晋의 王興之夫婦墓誌나 5세기 경 남조 宋의 劉懷民墓誌, 6세기경 북위의 元羽墓誌 등에서 確認된다[39]. 따라서 이 誌石文

35) 성주탁(1971: 210)에는 52字로 되어 있다. 이것은 맨 마지막 글자인 '印'字를 빠뜨렸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맨 마지막 글자는 김영욱(2003)에서 최초로 판독되었다.

36) 誌石의 書體에 對한 講評은 任昌淳(1983: 40)을 參照할 수 있다. 誌石의 字形이 400년대의 北魏 資料와 比較하면 南朝的이지만 기본적으로는 北朝系라는 主張도 있다(佐竹保子, 1984).

37) 여기에서 注目할 만한 句節은 '年 六十二 歲'이다. 이것은 韓國語의 數詞構文과 그 構造가 一致한다. 韓國語의 典型的인 數詞句은 '普通名詞+數冠形詞+單位名詞'로 이루어진다. '年 六十二 歲'는 그 構造가 '年(나이/普通名詞) + 六十二(육십이/數冠形詞) + 歲(세/單位名詞)'로 한국어의 수사구와 그 구조가 같다.

38)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영동 대장군인 백제 시마왕은 나이 예순 두 살로 계묘년 오월 병술삭 칠일 임진에 붕하였다. 을사년 팔월 계유삭 십이일 갑신에 이르러 등관대묘에 안초하니 입지는 여좌하다. 끝(印).

39) 왕흥부부 묘지는 南京市文物管理委員會 所藏이고 유희민 묘지 南朝 宋, 山東城 益都, 464年으로 원우 묘지(북위, 501년, 洛陽)와 함께 北京中國歷史博物館 所藏이다.

은 全般的으로 漢文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 百濟 吏讀가 섞여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는 漢文과 吏讀는 서로 다른 것이어서 '漢文은 漢文이요 吏讀는 吏讀다'라는 二分法에 빠지기 쉽다. 그런 까닭에 漢文과 吏讀가 섞여있는 混用文이 初期 百濟 吏讀의 特徵이라는 筆者의 主張(김영욱: 2003)을 참조에 대한 批判도 있었다[40].

그러나 觀點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마치 한글 文章 속에도 漢字가 섞일 수 있는 것과도 같이 한문과 이두가 섞이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한다. 어떤 文章이 漢文이 아닌, 한글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漢字語나 漢文이 존재하는 문체가 있듯이, 誌石文 전체가 漢文이라고 할지라도 吏讀가 섞일 수도 있지 않을까.

百濟 吏讀의 特徵 중의 하나로 合字를 들 수 있다. 扶餘陵寺址에서 出土된 百濟陶器의 文字資料다. 6世紀 무렵으로 보이는 이것은 '係文作元瓦天'으로 판독된다[41]. 여기에서 다섯 번째 글자를 눈여겨 볼 까닭이 있다.

이것은 瓦와 天이 합쳐진 文字다. 문장을 해석하자면 '계문이 지은 元瓦天'일 터인데, 瓦와 天의 合字가 무슨 뜻인지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어서 전체 문장이 未解讀의 狀態에 있다. '瓦'란 본래 기와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것이 새겨진 유물은 瓦가 아니라 질그릇이다. 그런 까닭에 이때의 '瓦'를 기와로 解釋하기 어렵다.

'瓦'에는 '陶'와 마찬가지로 '흙을 구운 것'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옛날에 백제 지역에서는 옹기로 관을 만든 적이 있었다. 이것을 '甕棺'이라 불렀다. 지금도 전라도 지역에서 옹관묘 유적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陶棺이라고도 했지만 瓦棺으로 불리기도 했었다. 이런 사안들을 감안하면 '瓦'자를 질그릇에 새긴 이유가 어느 정도 解明이 될 듯하다. '瓦+天'은 보통의 瓦와는 달리, 음식을 저장하거나 물 또는 술을

40) 권인한(2006, 2008나)를 참조.
41) 국립부여박물관(2002: 60)을 참조.

담는 옹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天'이라는 글자의 뜻은 '元' 하고도 통한다. '으뜸의, 빼어난, 자연의' 등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42]. 係文은 질그릇을 디자인하는 百濟匠人이었을 것이다. '係文作元瓦(瓦+天)'의 元도 '으뜸, 원래, 비롯함' 따위의 의미로 解釋할 수 있다면[43] 능사에서 출토된 이것은 아마도 '계문이라는 장인이 만든 원조 질그릇'이라는 뜻으로 짐작된다[44].

木簡에서도 合字가 확인된다. 扶餘博物館에서 2002년에 행해진 陵山里寺址의 8차 조사에서 마지막으로 출토된 木簡으로, 길이 44㎝, 각 면의 폭이 2㎝인 四面木簡이 있다. 4면 중, 제 3면에 서사된 墨書는 다음과 같이 판독된다. 悛猪耳其身者如黑也. 여기에서 '小吏'가 어떤 문자인지를 밝히는 것이 해독의 관건이다.

필자의 과문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글자가 중국 목간이나 일본 목간에서도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字典에서도 확인된 바 없다. 그렇다면 현재로서 유일한 대안은 이것을 백제인의 '合字'라고 간주하는 것뿐이

---

42) 天이 夫로 판독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瓦夫'는 문자 그대로 '남자 옹기장이'다. 이에 따라, '係文作元□'이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계문이 지었다. 원래 남자 옹기장이다.'일 터이다. 계문이 남자 옹기장이임을 강조한 것처럼 되어서 문장이 옹색해진다. 관점을 달리할 수도 있다. 기와에 암수가 있듯이, 질그릇 종류 중에도 '암질그릇'과 '수질그릇' 등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百濟用器文化에서 그러한 구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證據가 없는 한, '瓦+夫'가 '남성용 질그릇'이라는 주장은 상상에 머문다.

43) '元'이라는 말은 그것을 모방한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마도 계문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도자기들이 당시에 유행했었을 것이다. 백제 시대에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원조 도자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하여 계문이라는 장인이 만든 도자기에 元이라는 관형어가 부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당시에 유명한 도기 디자이너였을 것이다.

44) 이러한 '瓦天'의 용례가 중국에는 없다. 백제인의 造字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자의 창안이야말로 漢字 土着化의 한 양상이다. 기존의 한자인 瓦와 天을 이용하여 백제인의 문화 상황에 어울리는 새로운 문자를 합성해 낸 것이 아닌가 한다.

다. 사실 후대의 이두 중에서 乭, 旀 따위의 합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은 대체로 두 글자가 세로로 연결되어 합쳐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백제의 瓦天, 小吏 등은 가로쓰기로 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小吏'의 音과 義는 문맥에 의존하여 추리한다. '小吏'의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猪耳'인데 이것은 人名이다. 이 사람이 백제의 하급 관리였다는 역사학자의 해석을 받아들여서[45] 필자는 '小吏'를 [리]로 읽고 그 뜻은 '작은 관리'로 하여, '小吏'를 '작은 관리 리'자로 파악하고자 한다.

3.3. 新羅의 吏讀

고구려와 백제의 이두가 주로 문자, 문법형태 혹은 어휘의 차원에 머물렀다면 신라의 이두는 삼국시대 말기인 7세기에 이르러 그 표기법이 문장의 수준으로 향상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어 문장을 완전하게 표기할 수 있는 수준의 이두는 신라인들이 삼국시대에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나 종결어미를 표현하는 수준의 표기는 한문의 허사, 즉 어조사나 종결사의 수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라인들은 이두로 선어말어미를 표현할 수 있는 표기법을 고안하게 된다. 이것은 중국어의 문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을 표기하는 한자도 없다. 그런 점에서 선어말어미 표기법은 조사, 어말어미 등의 표기법과 차원이 다르다. 선어말어미의 표기법을 신라인이 고안했다는 것은 신라의 이두가 중국의 한자와는 기능면에서 완전히 결별했음을 의미한다.

고구려의 이두나 백제의 이두는 한문의 문법과 차이를 보이며 한국어를 표기했다는 점에서 한자와 구별되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는 여전히 漢文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 즉 한문으로도 읽히고 국어로도 읽히는 이중성이 있었다. 물론 이

45) 이 점에 대해서는 윤선태(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의 조언이 있었다.

러한 이중성은, 한자와 한글과 비교할 때에, 이들 두 문자가 지니고 있지 않은 吏讀의 고유 속성이다.

그런데, 7세기의 신라인들은 여기에서 나아가 이두를 그 기능면에서 한자와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을 표현해 내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발명은 신라의 이두를 더욱 이두답게 만들었다. 금석문이나 목간 등, 1차 자료에 보이는 신라의 이두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다소 늦은 6세기부터 확인이 된다.

유명한 예로는 임신서기석(552년 추정)[46]을 들 수 있다. 天前誓, 今自三年以後와 같이 국어어순으로 표현된 것을 비롯하여 可容行誓之의 之와, 그리고 之 다음의 空白이 있는데, 이 공백도 문장 구두점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국어 표기법의 한 장치다.

신라 이두에서 中, 之를 많이 보는데 이것은 고구려 이두의 영향일 것이다. 경주의 서봉총에서 발견된 장수왕 3년(451년)의 은합에 中이 있음이 그것의 한 증거다. 법흥왕 26년(539년)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하는 川前里書石에 '中'이 있다. '甲寅大王寺中安藏許作, 乙丑年九月中沙喙部干西, 辛亥年九月中'. 明活山城作城碑(551년)에도 辛未年十一月中作城也, 郡中上人烏大谷 등의 예가 있으며, 南山新城碑(591년) 등 여러 비문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금석문에 中이 널리 쓰였으며 목간 자료에도 中이 보인다. 經中入用思買白不雖紙一二个(149호 목간). 단양적성비의 '合五人之'에서 종결어미 '-之'가 확인된다. 이러한 之의 용법도 中과 마찬가지로 5세기 고구려 자료에서 확인된다. 6세기 중엽 자료로 추정되는 함안목간에서도 '殂鐵十之'처럼 之가 보이고, 목간 149호에서도 '牒垂賜敎在之'처럼 之가 확인된다.

그러나 신라 이두의 독창성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선어말 어미 표기와 관련된 것이다. 경주

46) 이기문(2008: 62)를 참조.

皇南洞에서 출토된 목간 281번의 판독문은 다음과 같다[47]. '(앞면) 五月廿六日椋食○內之下椋有……'[48]. 이것은 7세기 자료로 추정되는데 해석을 하자면 '5월 26일 창고에 먹을 것(식량)을 ○하였다.'이다. 이때의 '內'는 중세국어의 '-ᄂᆞ-'에 소급할 만하다.[49]

다음은 월성해자 목간 149호의 全文이다. 大鳥知郎足下万行白ㅣ 經中入用思買白不雖紙一二个 牒垂賜敎在之 後事者命盡 使內. 여기에서 敎在之의 在, 使內의 內는 선어말 어미를 표현한 것이다. 이때의 在, 內는 그것의 문법적 기능이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러한 이두의 창안은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볼 수 없는 신라인의 창안이다.

삼국시대 후기의 자료로 보이는 월성해자 목간은 이두의 수준이 문법형태나 어휘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문장 차원까지 표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之의 초서체가 더욱 변형이 되어 'ㅣ'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고려시대의 석독 구결 자료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그 음가는 /다/이다. 'ㅣ'의 존재는 신라의 이두가 7세기에 이르러 이미 한자의 수준을 넘어서, 독창적인 신라인의 문자로 발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자를 변형하는 원리가 일본의 히라가나와 동일하며, 문자의 음가도 완전히 한국식으로 바뀌었음을 본다.

---

47) 281番 木簡은 소나무로 만든 것인데, 길이가 17.5㎝, 폭 2.0㎝, 두께 0.6㎝이고 아랫부분이 破損되어서 全體 內容은 알 길이 없다. 墨書된 것이 판독은 되었지만 해석이 없고 判讀文에 대한 어학적 분석도 없었다. (國立昌原文化財硏究所 編 2006: 200-201).

48) 목간의 중간이 닳아버린 까닭에, ○의 字를 판독할 수 없지만 문맥으로 보아 ○은 食量 在庫 調査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內之' 다음에는 자간 空白이 있고 이어서 '下椋有'이다.

49)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그 기능은 直說法이다. 이것은 '五月廿六日椋食○內之'라는 문장의 내용이 실제로 행해진 일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로서 확정적이라기보다는 가설적이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나와서 좀더 치밀하게 논증할 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다. '內'가 '納(들이다)'을 의미하는 타동사로 쓰였다는 해석도 있다.

4. 結語

본고에서 설정한 이두의 기본적 개념은 최만리의 상소문에 기록된 '然皆借中國通行之字 施於語助'에 근거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두의 1차적 의미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借字다. 국어사 연구를 위한 문자 자료는 이제 3가지로 압축된다. 漢字, 吏讀, 한글이 그것이다. 한자는 한문과 연결되고 한글은 국어와 연결되며 이두는 한문과 국어에 걸치는 이중적 속성을 지닌다. 이두의 개념을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한자로 기록된 삼국시대의 문자 자료 중에서 국어 표현과 관련된 것들을 이두의 범주 속에서 논의할 수 있다.

삼국시대는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7세기까지 700여년에 걸친 시기로 4세기 고구려에 의한 낙랑의 통합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었다. 漢의 문서행정에 의한 지배체제가 존속했던 삼국시대 전기에 이두가 싹트기 시작했다. 삼국시대 후기가 시작되는 5세기 무렵 고구려에서 之, 中, 節 등이 생겨났다. 어휘 표기를 위한 이두들도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여 석독이나 음독에 의한 지명, 인명, 관명 등의 표기가 개발되었다. 백제에서는 중국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새로운 合字를 만들어 냈으며 語順에 의한 국어표기 방식도 고안되었다.

이두가 문장 차원의 표기로 발전한 것은 신라인의 독창이다. 6세기에는 신라가 고구려, 백제의 영향으로 之, 中 등 조사, 어말어미 표기법과 어순에 의한 국어표기법 등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후기에서 통일신라기로 넘어가는 7세기에 이르러서는 선어말어미 표기를 고안하고, 신라식으로 변형된 문자들이 발명되었다. 신라인의 이두가 기능적인 면과 형태적인 면에서 한자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됨으로써, 신라어의 표현과 전달에 있어서 신라인들은 보다 자유롭고 풍성한 문자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參考文獻

高句麗硏究會 編(1999),『廣開土好泰王碑 硏究 100年』, 학연문화사.
高句麗硏究會 編(2000),『中原高句麗碑 硏究』, 학연문화사.
口訣學會 編(2005),『漢文讀法과 아시아의 文字』, 太學社.
國立慶州博物館(2002),『文字로 본 新羅』, 學硏文化社.
國立夫餘博物館 編(2002),『百濟의 文字』, 國立夫餘博物館.
國立中央博物館 編(2001),『낙랑』, 國立中央博物館.
國立昌原文化財硏究所(2004),『韓國의 古代木簡』, 藝脈出版社.
權仁瀚(2006), 武寧王陵 出土 銘文들에 대한 語學的 考察,『口訣硏究』17, 구결학회, 91-128.
權仁瀚(2007), 正倉院藏 '第二新羅文書'의 正解를 위하여,『口訣硏究』18, 구결학회, 141-172.
權仁瀚(2008가), 함안 성산산성 목간 속의 고유명사 표기에 대하여,『史林』31, 성균관대학교, 31-62.
權仁瀚(2008나), 백제식 속한문을 찾아서, 口訣學會 月例硏究發表會 發表 원고(2008.12.13).
權仁瀚(2010), 목간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 문자문화, 韓國木簡學會 發表 원고(2010.11.19).
권택장(2010), 慶州 傳仁容寺址와 '大龍' 木簡, 韓國木簡學會 發表 원고(2010. 여름).
金秉駿(2008), 樂浪郡 初期의 編戶過程과 '胡漢稍別',『木簡과 文字』創刊號, 한국목간학회, 139-186.
金秉駿(2009), 樂浪의 文字生活,『古代文字資料로 본 동아시아 文化 交流와 疏通』, 東北亞歷史財團, 35-51.
金完鎭(2005), 국어학 10년의 앞날을 바라본다,『국어국문학, 미래의 길을 묻다: 향후 10년의 지형도』,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엮음, 太學社, 15-27.
金永旭(2003), 百濟 吏讀에 對하여,『口訣硏究』11, 구결학회, 125-151.
金永旭(2004), 判比量論의 國語學的 硏究,『口訣硏究』12, 구결학회, 81-98.
金永旭(2007), 古代韓國木簡에 보이는 釋讀表記,『口訣硏究』19, 구결학회,

171-189.
金永旭(2008), 西河原森ノ內 유적지의 '椋直' 목간에 대한 어학적 고찰, 『木簡과 文字』 創刊號, 한국목간학회, 213-232.
金永旭(2009), 和化漢文의 起源에 관한 一考察, 『口訣硏究』 22, 구결학회, 179-195.
金永旭(2011), 傳仁容寺址 木簡에 대한 어학적 접근, 목간학회 2011년 봄철 발표회 원고.
南豊鉉(1999가), 『瑜伽師地論 釋讀口訣의 硏究』, 太學社.
南豊鉉(1999나), 『國語史를 위한 口訣硏究』, 太學社.
南豊鉉(2000가), 『吏讀硏究』, 太學社.
南豊鉉(2000나), 中原高句麗碑文의 解讀과 그 吏讀的性格, 『中原高句麗碑硏究』, 학연문화사.
南豊鉉(2002), 新羅時代 口訣의 再構를 위하여, 『口訣硏究』 8, 口訣學會, 77-109.
南豊鉉(2006), 上古時代에 있어서 借字表記法의 發達, 『口訣硏究』 16, 구결학회, 5-26.
都守熙(2005), 『百濟語硏究』, 제이엔씨.
리득춘(1992), 『한조언어문자관계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박병철((1997), 『한국어 훈석 어휘 연구』, 이회.
배대온(2002), 『吏讀文法素의 通時的 硏究』, 경상대학교 출판부.
卞麟錫(2000), 『唐 長安의 新羅史蹟』, 亞細亞文化社.
成周鐸(1971), 武寧王陵, 『百濟硏究』 2, 學硏文化社.
梁柱東((1965/1997), 『增訂 古歌硏究』, 일조각.
尹善泰(2000), 「新羅 統一期 王室의 村落支配--新羅古文書와 木簡의 分析을 中心으로--」,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尹善泰(2005),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 56.
尹善泰(2006가), 百濟 泗沘都城과 '蝸夷', 충청문화재연구원, 『동아고고논단 』 2.
尹善泰(2006나), 한국고대목간의 연구현황과 전망, 한국역사연구회 기획 발표논문집.
윤용구(2010), 손영종 〈고구려사〉(전5책, 2006-2008)에 소개된 새로운 문자자료, 한국목간학회 발표문(2010.11.19).

李基文(1968), 高句麗의 言語와 그 特徵,『白山學報』4, 白山學會.
李基文(1981), 吏讀의 起源에 대한 一考察,『震檀學報』52, 震檀學會.
李基文(1991),『國語語彙史硏究』, 東亞出版社.
李基文(1998/2008),『國語史槪說(신정판)』, 塔出版社.
李丞宰(2008), 295번과 305번 목간에 대한 管見,『나무속의 암호 木簡』, 58-60.
李丞宰(2009가), 墨書紙片의 語學的 意義,『불국사석가탑유물2-중수문서』, ㈜시티파트너.
李丞宰(2009나), 목간과 국어학,『고대의 목간, 그리고 산성』, 國立伽倻文化財硏究所·國立扶餘博物館, 111-124.
李勇(2006), 廣開土王碑文의 吏讀的 要素,『구결연구』17, 구결학회, 71-90.
이용현(2007), 문자자료로 본 삼국시대 언어문자의 전개,『구결연구』19, 구결학회, 191-226.
李宇泰(2005), 金石文을 통하여 본 漢字의 導入과 使用,『한국고대사연구』38, 한국고대사학회, 113-34.
李浚碩(1998),「國語借字表記法의 起源硏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任昌淳(1983), 百濟의 漢文文化,『百濟硏究』14, 學硏文化社.
鄭光(2003), 韓半島에서 漢字의 受容과 借字表記의 變遷,『口訣硏究』11, 구결학회, 53-86.
鄭光(2006), 이문과 한이문,『口訣硏究』16, 구결학회, 27-70.
鄭永鎬(2000), 中原高句麗碑의 發見調査와 意義,『中原高句麗碑 硏究』, 학연문화사
鄭在永(2003), 百濟의 文字 生活,『口訣硏究』11, 구결학회, 87-124.
鄭在永(2008), 월성해자 149호 목간에 나타나는 이두에 대하여,『木簡과 文字』創刊號, 한국목간학회, 93-110.
鄭在永(2009), 韓國 古代文字資料에 나타나는 終結語尾 '之'에 對하여,『古代 文字資料로 본 동아시아의 文化 交流와 疏通』, 東北亞歷史財團.
鄭喆柱(1988),「新羅時代 吏讀의 硏究」, 啓明大學校 博士學位論文.
朝鮮總督府(1937/1975/1986),『吏讀集成』, 中樞院/日本國書刊行會/(大提閣影印本).
叢文俊(1999), 關於高句麗好太王碑文字與書法之硏究,『광개토호태왕비연구100년』, 학연문화사.
주보돈(2007), 한국 목간 연구의 현황과 전망,『木簡과 文字』創刊號, 한국목간학회, 31-48.

최남희(1996), 『고대국어 형태론』, 박이정.

정동준(2009), 〈佐官貸食記〉 목간의 제도사적 의미, 『木簡과 文字』 4, 한국목간학회, 35-58.

韓國歷史硏究會 編(2004),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甘肅人民美術出版(1995), 『敦煌漢簡書法精選』, 蘭州新華印刷廳: 中國 甘肅省.

國立歷史博物館/高雄市立美術館(1994), 『王朝秘錄-古中原考古文物展』, 國立歷史博物館編輯委員會.

三上喜孝(2007), 日本古代木簡の系譜, 韓國木簡學會 國際學術大會 發表論文集.

董志翹(2009), "中"의 文法的 意味와 文法的 機能 略論, 『古代 文字資料로 본 동아시아文化 交流와 疏通』, 東北亞歷史財團.

藤本幸夫(1986), 中字攷, 『日本語硏究(二)』, 明治書院.

小林芳規(2002가), 韓國의 角筆點과 日本의 古訓点의 關係, 『口訣硏究』 8, 구결학회, 50-76.

小林芳規(2002나), 大谷大學藏新出角筆文獻について特に,'判比量論'に書き入れられた新羅の文字と記號--, 『書香』 19, 大谷大學圖書館, 4-6.

小林芳規(2010), 日本의 오코토点의 起源과 古代 韓國語의 點吐와의 關係, 『口訣硏究』 25, 구결학회, 21-46.

小倉進平(1929/1974), 『鄕歌及び吏讀の硏究』,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亞細亞文化社影印).

和田 萃(2010), 木簡は語る, 『木簡から古代がみえる』, 岩波新書.

Kalgren,B.(1966), Analytic dictionary of Chinese and Sino-Japanese, Cheng-wen publishing company: Taipei.

Lee, SeungJae(2010), On the Early Korean Numerals Inscribed on Wooden Tablet no.318, Writings And Civilizations (Proceedings of the SCRIPTA 2010), The Hunminjeongeum Society, 129-172.

[130-74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mail: kimyu@uos.ac.kr
접수일자: 2010.07.05
심사일자: 2010.07.26
게재결정: 2010.08.10

A Basic Discussion about the Three Kingdom Age Idu

Kim, Young-wook

Before the invention of Hangeul, We, Korean used 'Idu' to communicate each other. The oldest forms of it sprouted from Three Kingdom age. If we look at Samgukji, Samguksagi, Samgukryusa, we can find the record on the letters or documents which Old Korean people used and some jobs which related with the usage of the old letters. According to Samgukji, at the beginning of the first century, Korean people got jobs of writing letters and making documents for the state administration.

Idu was evolved from Chinese characters. It seems to be Goguryeo people who first invented Idu at the 5th century. But it was premature and the idu was partly used in the context of classic chinese sentences. But Goguryeo Idu was succeeded to Silla people, it became more developed. Silla people developed more cultivated writing system until the 7th century.

Key words: three Kingdom age, Idu, Samgukji, Goguryeo, Silla(轉字音), Jeonsaeum(轉寫音)